

예수님이 ‘나의 주님’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‘주인’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. 예수님을 믿는 순간,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. C. S. 루이스는 “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셨다”고 고백합니다.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. 나의 죄와 죄 된 옛 사람은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생명을 얻었고,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. 예수님께 내 마음과 삶을 열어 드릴 때,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십니다(계 3:20).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.

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‘삶의 목적’이 바뀝니다.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.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, 그분의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.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.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(히 11:38).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

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‘신뢰의 대상’이 바뀝니다.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고백은 ‘전적인 신뢰’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, 모든 삶을 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. 포기과 희생이 아닙니다.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자는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.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. 한없는 사랑과 은혜,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내 삶 전체를 덮습니다. ‘주 되심’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, 즉 우리를 완전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.

나는 예수님을 나의
주인으로 인정합니까?

- ① 나는 매 순간, 모든 사안에 주님을 떠올립니까?
- ②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?